

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2020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



일시	오프라인 : 10월 7일(수) 온라인 : 9월 15일(화) ~ 10월 6일(화) 3주간		
장소	연세대 백양누리홀 B1층		
참가대상	취업을 원하는 이공계 인재		
행사구성	우수 기업 - 이공계 인재간 채용 연계 및 일자리 정보제공		
주최	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KB국민은행, 연세대학교		
주관	4대 과학기술원(KAIST, DGIST, GIST, UNIST),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(UST),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, 국가과학기술연구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,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, 이노비즈협회, 코스닥협회, 한국전지협회		
기업신청기간	주최측에 문의	개인신청기간	9/15(화) ~ 10/7(수)
문의처	032-245-7016	FAX	--
담당자	박람회운영사무국	E-MAIL	rndjob@jobkorea.co.kr
사이트(출처)	http://jobfair.rndjob.or.kr		

취업박람회 행사 참여전 개최여부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-잡815

비전공 청년에게도 디지털 일자리의 길을 열다 ! 취업의 지름길 “K-Digital Training”

<K-Digital Training이 남다른 네 가지 이유>

- 하나. 멋쟁이사자처럼, 프로그래머스, 서울대, 네이버커넥트 등 청년들이 워너비(가고 싶어)하는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·우수대학 등 참여
- 두울. 네이버, 마이리얼트립, 솔트룩스 등 청년들의 워너비(취업하고 싶은)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 지원
- 셋. 개인 맞춤형교육으로 비전공자도 워너비(되고 싶은) 디지털 현장 실무 인력으로 성장 가능
- 넷. 청년들의 워너비(듣고 싶은) 우수과정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

- 코딩의 기초를 모르는 비전공 청년에게도 네이버, 카카오 등 요즘 핫(hot)한 디지털 일자리의 길이 열린다.
 -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2일(화) 16:00 카페 포에트(서울 마포구 소재)에서 우아한 형제들, 멋쟁이사자처럼, 서울대 등 K-Digital Training(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)에 참여하는 교육훈련기관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.
 -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뉴딜(사람투자)의 핵심과제인 K-Digital Training에 참여하는 총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서 3,600여명의 청년에게 디지털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8만명까지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 - * (21년) 1.7만명 → (22년) 2.5만명 → (23년) 3.4만명 → (24년) 4.4만명 → (25년) 5.8만명
-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, ‘고용노동부’와 ‘멋쟁이 사자처럼’ 유튜브 채널에 동시 생중계되었다.
 - 생중계를 놓친 청년들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채널에서 설명회 영상을 「다시보기」 할 수 있다.
-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K-Digital Training이 기존 교육훈련사업과 다른 이유를 청년들의 4가지 워너비로 설명하였다.
 - 첫째, 멋쟁이사자처럼, 프로그래머스, 서울대, 네이버커넥트 등 청년들이 워

너비(가고 싶어)하는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·우수대학 등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.

○ 둘째, 네이버, 솔트룩스, 마이리얼트립 등 청년들의 워너비(취업하고 싶은)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의 설계를 지원하여 취업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다.

○ 셋째, 온라인 교육훈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교육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비전공자도 워너비(되고 싶은) 디지털 현장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.

○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워너비(듣고 싶은)하는 인기 있고 우수한 교육 훈련과정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.

□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혁신교육훈련기관들도 자신들만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철학을 소개했다.

○ 프로그래머스 임성수 대표는 “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지식이 아닌 프로그래밍 능력인 만큼 코드구현 역량 향상에 집중한 교육 모델이 핵심이다”라고 강조하면서

- “프로그래머스는 네이버, 카카오 및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진행한 채용연계 역량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○ 우아한테크코스(우아한형제들) 박재성 이사는 “능동적인 현장형 인재 양성이 목표”라고 하면서

- “수동적인 지식전달 교육이 아닌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·현장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 협업·소통 등 소프트스킬 역량을 쌓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”고 언급하였다.

○ 코드스테이츠 김인기 대표는 “경제적,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, 누구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,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”며,

- “국내 최초 코딩 부트캠프를 시작해 수료생 중 취업률 95%를 달성했고,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, 데이터 사이언스 등 IT

커리어를 꿈꾸는 분들에게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책임감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.”라고 말했다.

-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(대표 김재원)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프로그래밍을 시연하고 “청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. K-Digital Training이 있습니다”라는 화면을 만들어 전국으로 송출하기도 했다.
-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K-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의 현장 Q&A인 라이브톡톡이 생중계로 이어졌다.
 - 서울대 류근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해당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질문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혁신교육훈련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.
 - “코드 한 줄도 쓸 줄 모르는 비전공자인데 훈련과정에 참여해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”는 한 청년의 질문에,
 - 몇쟁이사자처럼 이두희 대표는 “수많은 비전공자가 몇쟁이사자 처럼을 통해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진출하였으며, 비프로11,뱅크샐러드, 탈잉 등 스타트업의 대표도 다수 배출하였다”며
 - “최근 코로나 알리미 제작자도 비전공자였지만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을 직접 제작하였다”고 답하여 비전공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.
-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 외에도 네이버커넥트, 부산대, 대덕인재개발원, 대한상의 등 전국 43개 기관들이 K-Digital Training 훈련과정을 제공한다.
 - K-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 (www.hrd.go.kr) 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.
 -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등은 HRD-Net과 각 교육·훈련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“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에

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오늘 라이브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”면서

- “최근 기업들은 디지털 분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충분한 교육·훈련기회 부족으로 디지털 분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K-Digital Training을 추진하게 되었다”고 밝혔다.
- “라이브톡톡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걱정들을 들으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”면서, “청년 여러분들이 K-Digital Training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마음껏 누리길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창기 사무관(☎044-202-73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